



자원활동 동아리 '아롱시미' 회원들은 여성의 몫으로 인식돼온 보육 교사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초대회장 이상민씨가 한 어린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고정관념을 깬다 ④

동아리 '아롱시미'

걸걸한 선머슴들이 어린이집 살림살이

이병학 기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튼튼이 어린이집'에서는 여자선생님의 예쁜 목소리보다도 굵은 남자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

이곳 아이들이 유난히 따르는 '삼촌'들의 목소리다. 이들은 하루에 두 명에서 많게는 대여섯명씩 물려와 3~6살짜리 2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른다. 그런가 하면 동화책을 읽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기, 옷 빨기, 벽지도배, 가구·난방기구 수리예다, 점심·간식준비, 설거지까지 해치운다. 이 '남녀분별'없는 '삼촌'들은 숭실대 경영학과 동아리 '아롱시미'(회장 한재용·1년)의 20여명 회원들이다.

'아롱시미'가 서울여성노동자회 소속 여성복지회관(대표 이영순)의 '튼튼이 어린이집' 살림살이에 끼여든 것은 7년전이다.

"1학년 때 친구들과 남들이 '하지 않는 이웃돕기' 방법을 찾다 맞벌이 부부 아이를 맡는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여기 찾아와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보육선생님들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아이를 맡긴 부모들도 '남자들이 웬 아이 돌보기냐'며 달가워하지 않았습다."

지난 89년 9월부터 군대생활 기간을 빼곤 줄곧 이곳에서 활동을 펴고 있는 '아롱시미' 초대회장 이상민(27·4년)씨는 '여성들 몫'으로만 인식돼

온 어린이집 놀이활동에 뛰어들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 굶은일을 마다 않는 '남자답지 않은' 열성으로 이들은 어느새 교사·부모·어린이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삼촌'들로 인정받게 됐다.

보육교사 김숙자(30)씨는 "이들이 각종 놀이나 일에 참여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는 교육효과를 얻고 있다"며 "남학생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일하는 모습을 본 아이가 집으로 가 '아빠는 왜 부엌일 안하느냐'고 '항의'해 따졌었다는 아버지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아롱시미 회장 한씨는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여성들만이 도맡아 돌본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남자도 여성 못지 않게 보육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어린이집 일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는 '보수문제나 보육시설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원 등이 따르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졸업 뒤 남성보육사로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이 보람있고 즐겁기 때문이다. 남자보육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아롱시미'가 해내고 있는 일은 성구별 없이 어린이를 기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소중한 노력으로 보인다.